

<1번> 이제 관광 안내원이 돌하르방을 소개하는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관광 안내원 :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석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학생 있어요?

학생 : 돌하르방이라고 하지 않나요?

관광 안내원 : 예, 맞습니다. 혹시 ‘하르방’이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학생 : 제주도에서는 ‘할아버지’를 ‘하르방’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어요.

관광 안내원 : 그렇죠. ‘하르방’은 ‘할아버지’의 제주 사투리에요. 그러니까 돌하르방은 ‘돌로 만든 할아버지’란 의미죠. 지금 제주에는 이런 돌하르방이 모두 마흔다섯 개가 있는데, 제주 시내와 대정읍, 그리고 성읍리(城邑里) 등지에 있습니다.

학생 : 어, 그런데 이 돌하르방은 사진에서 본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관광 안내원 : 네, 여러분은 아마도 돌하르방이 모두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역에 따라 돌하르방의 생김새는 다르답니다. 제주시내에 있는 제주목 돌하르방이 여러분이 기억하는 돌하르방의 이미지와 가장 비슷할 거예요. 제주목 돌하르방은 부리부리한 눈, 이마의 주름과 볼의 근육이 두드러지고요, 몸집이 커서 위엄 있게 보인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정의현 돌하르방입니다. 이 돌하르방은 제주목 돌하르방과 비교할 때, 몸집에 비해 얼굴이 상대적으로 크고, 얼굴 형태는 둥글넓적하고 단순한 편이죠. 또 두 손을 배 위에 공손히 얹고 있는데, 오른손이 왼손보다 살짝 위에 놓여 있죠. 가장 큰 특징은 눈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 제주의 돌하르방에는 대정현 돌하르방도 있어요. 대정현 돌하르방의 특징은 안경을 쓴 것처럼 눈이 튀어 나왔다는 겁니다. 가지런히 펼친 양손을 가슴 위아래로 공손히 얹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중에는 두 손을 깎지 낀 듯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2번> 이번에는 동양철학'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서점에 가면 동양 철학에 대한 책들이 무척 많습니다. 동양 철학이 오늘날 다시 부흥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 첫째는 개인주의입니다. 명상을 통한 개인적 수양에만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에는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노장 사상, 개인의 도덕성만 강조하는 유교도덕주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측면을 무시하고 개별적 존재로서의 '개인'만을 강조하는 이런 경향의 확산은, 사회성의 부정과 그에 따른 실천성의 결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 옷만 더럽히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아가기 쉬우며, 부정과 불의를 보고서도 냉소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은 개인의 수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직관적 체험을 바탕으로 성인이나 도사가 되기를 바랄 뿐 사회 구조나 역사는 무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비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 의식을 지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게 합니다.

유교의 본래의 목적은 모두가 어우러지는 대동(大同) 세계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닦고 나아가 사회에 참여한다는 『논어』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장 사상의 회의와 부정, 냉소 또한 소극적이지만 현실 세계의 모순을 향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주체로 어우러지는 참 평등 사회를 위해 이를 가로막는 사회 제도와 허위 의식을 부정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래의 목적이 왜곡되고 개인주의와 신비주의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공자나 노자, 장자가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온다면 현재 유행하는 자신들의 사상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요?

<3번> 이번에는 강의를 들려드립니다. 이 문제는 물음과 답지를 듣고 푸는 문제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누군가로부터 이해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또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하는데, 이를 공감적 듣기라고 합니다. 공감적 듣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체의 판단을 유보한 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적 듣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집중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반응 없이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면 말하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하는 등의 몸짓과 “그래?”, “정말?”, “맞아”, “그래서” 등의 음성적 반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격려하기’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이죠. “좀 더 이야기해 봐.”, “좀 자세히 말해 주겠니?”와 같은 말로 계속 대화를 이끌어간다거나 상대방이 한 말 가운데 주요한 어휘나 표현들을 반복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데, “예/아니오”로 답해야 하는 닫혀진 질문보다는 “그것에 대한 네 생각은 어떠니?”와 같은 열려진 질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영하기’가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의 관점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 들은 내용을 자신이 이해한 자신의 말로 다시 진술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견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물음과 답지를 들려 드립니다. 어떤 학생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할 때, 이 학생의 말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 중 ‘공감적 듣기’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 : 요즘 너무 힘들어요. 3학년이 되니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요.

학생의 말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을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반응 : 그래. 네 말대로 정말 힘들어 보이는구나.

두 번째 반응 : 맞아. 나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너처럼 힘들었었어.

세 번째 반응 : 힘들더라도 참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란다.

네 번째 반응 :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신경이 쓰이는지 말해 줄 수 있겠니?

다섯 번째 반응 : 공부할 양도 많아지고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고, 정말 힘들지?

<4번> 이번에는 강의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화는 대개 일정한 단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화 구조 모델 중의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시작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화 참가자들은 인사를 주고받거나 본격적인 대화로 들어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규칙 협상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말 그대로 규칙에 대해 협상하는 단계인데, 무엇에 대해, 어떻게, 얼마나 대화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협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규칙 확정 단계'입니다. 대화 참가자들이 그 규칙에 대해 합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화에서는 규칙을 협상하고 확정하는 단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계로 이를 '전개 단계'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종결 단계'로, 대화를 마무리짓거나 주제를 바꾸는 단계입니다. 잘 들었습니까? 이번에는 대화의 한 장면을 듣고 이 대화를 분석해 봅시다.

남자 : 정민아, 안녕. 요새 잘 지내니?

여자 : 물론이지. 그런데 영수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남자 : 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가야 하는데.

여자 : 한 5분이면 돼. 간단한 거야.

남자 : 급한 일이 있다고 했잖아.

여자 : 그러면 3분이면 되겠어?

남자 : 좋아. 용건만 간단히 말해.

여자 : 지난 번에 내가 아주 감동적이라고 했던 영화, 그 비디오 좀 빌려줄 수 있니? 영화 감상문을 써야 하는데, 보러갈 시간도 없지만 마땅하게 볼만한 것도 없어.

남자 :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지.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하니? 그러면 우리집에 같이 가자. 대신 꼭 돌려줘야 해. 지난번처럼 애먹이지 말고.

여자 : 알았어. 고맙다. 그런데 너 이번 일요일에 시간 있니?

남자 : 오후에는 가능한데…… 뭐 하려고?

5번과 6번. 이번에는 토론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최근 인터넷 지식 검색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남자·여자 : 안녕하세요.

진행자 : 먼저 박정연 교수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여자 : 네.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서 지식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엄격한 논리와 체계를 갖춘 것만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실용성을 그 바탕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서 쓸모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충분히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 지식 검색은 지식의 대중화가 이미 막을 수 없는 추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시대의 지식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많은 개인들이 물어다 놓은 정보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윤상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남자 : 네. ‘지식 검색’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지식 검색창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내용을 보면 잡학이나 생활의 지혜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식이라면 마땅히 그것이 공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래야만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됩니다. 수많은 정보를 재조직하고 논리를 세워 체계화한 지식을 생산하는 행위가 단편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 하더라도 변해서는 안 될 것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인터넷의 지식 검색은 지식의 생산·유통과 관련하여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죠. 먼저 박정연 교수님.

여자 : 과거에는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특정 계층이 독점했고, 그에 따라 지적인 훈련을 거치지 못한 대중들이 지식에 접근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중들은 다릅니다. 대중 스스로가 지식 생산과 유통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지식 검색은 기존의 지식 생산과 유통의 맹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이번에는 윤상인 교수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 : 인터넷이라는 대중 매체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키고,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러한 현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창조해 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혹독한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독서와 주체적인 사고를 통해 체험과 정보를 조직하고 논리와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연마 과정을 거친 전문가만이 지식을 올바르게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잠시 토론을 멈추고 방청객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